



보건복지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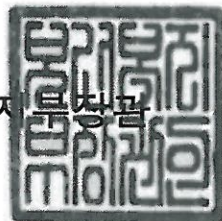


수신 대한의사협회장
(경유)

제목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

1. 대의협 제688-9825호(2018.11.16) 관련입니다
2. 평소 우리부 정책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3. 귀 협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.
 - 1)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
 - 진단서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(의료인의 전문성, 법적책임 등)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진료확인서,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으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
 - 2)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」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(2017.6.27)와 고시 시행(2017.9.19.) 기준 변경 사유
 - (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 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 항목기준에 “진단명 없음”을 명시하였으나, 제정·공포시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진료현장의 혼란을 초래)
 - 법령에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,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자율서식이므로 진단명 기재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
보건복지부장관



주무관 장태준 행정사무관 신명희 의료보장관리 전결 2018. 12. 13.
과장 고흥우

협조자

시행 의료보장관리과-2357 (2018. 12. 13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4층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 /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682 팩스번호 044-202-3983 / jtj6101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